

포스트모더니즘과 지방성 논쟁*

존재론적 질문들 그리고 인식론적 함의

바니 와프(Barney Warf, Kent주립대 교수)
손명철 옮김/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

급변하는 사회이론의 회오리 속에서도, 지리학은 최근 다양하고도 새로운 철학들을 탐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학적 탐색 가운데 상당 부분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강력한 추동력에 의해 시발되었다(Gregory, 1987, 1989; Dear, 1988; Ley, 1989). 이와 더불어 지방마다 특이하게 나타나는 차이점들에 대해 새롭게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역지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성 논쟁(localities debate)의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Cooke, 1987; Warf, 1988; Cox & Mair, 1989; Lovering, 1989).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 두 가지 담론(포스트모더니즘과 지방성)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논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리학내에 어떻게 등장했으며 포스트모더니즘과 지방성 논쟁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핵심적 주장들을 개괄하려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기존의 사회이론들에 대한 인식론적 도전이 제시된다. 둘째, 포스트모던한 관점과 지방성 논쟁이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통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모더니스트들의 큰 이

* 출전: *Tijdschrift voor Econ. en Soc. Geografie*, 84(3), 1993, pp.162-168.

이 번역문을 꼼꼼히 읽고 문장을 다듬어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과 심승희·임영숙 후배에게 감사한다.

야기(metanarratives)는 이제 지방마다 고유한 사회구성체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존재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차원에서 진정한 포스트모던 지리학이 구축될 수 있는 토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1. 포스트모더니즘: 개요

계몽주의로부터 싹튼 모더니스트 기획(modernist project)은 자본주의 및 산업혁명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포괄적이고 매혹적인 세계관을 낳았다(Berman, 1982). 여러 면에서 차이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대체로 모더니즘은 인간의 합리성, 유일하게 타당한 지식의 형태로서의 과학(science)의 우위성, 자연에 대한 기술적 지배, 진보의 불가피성, 그리고 목적론적 역사관(맑스주의나 헤겔학과 모두 마찬가지; 여기서 과거는 어쩔 수 없이 현재에 의해 대체된다)과 같이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테마들을 핵심적 경향으로 하고 있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보면 모더니즘은 시간과 장소 혹은 이론가들 자신의 사회적 정황과는 독립된 보편적 진리를 찾으려는 경향을 큰 줄기로 하고 있다. 실증주의나 맑스주의를 막론하고, 모더니스트들의 사고는 근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근본주의 철학에 따르면, 보편적 '법칙'들은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를 드러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사회적으로 구축된 편의적 도구가 아니라 객관적 실체를 노출시킨 것이다. 모더니즘은 객관적 합리성을 제외한 모든 담론들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함과 동시에 이들을 주변화함으로써 객관적 합리성이라는 외투를 혼자 전유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모더니스트 기획은 냉엄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실증주의는 사회적 실체를 자연과학에서 빌려온 물리학적 용어들을 사용해 묘사하고 있다(예컨대 중력모델). 실증주의는 특히 그것이 가지는 몰역사성, 사회적 관계에 대한

명료한 개념의 부재, 권력에 대한 논쟁 소홀, 인간의식을 이론화하지 못한다는 점, 실현불가능한 가치중립적인 객관성을 고집한다는 점, 기법으로 이론을 대체하는 것, 그리고 비이론적인 경험주의로의 매몰 경향 등의 측면에서 신랄한 공격을 받고 있다. 실증주의는 권력의 역사적 동학을 무시함으로써, 사회적 실체는 역사적 맥락 속에 처해 있는 인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의식적 행위에 따라 변하거나 그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다분히 문제성 있는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한편, 또 하나의 거대한 모더니스트 기획인 맑스주의 역시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결정론(사회적 규정력을 계급과 생산으로 환원), 목적론적 역사해석, 인간의식에 대한 무시, 그리고 자기들만이 ‘과학적’ 지위에 설 수 있다는 오만한 가정 등이 맑스주의가 비판받는 핵심적 쟁점들이다(Duncan & Ley, 1982; Gould, 1988). 구조주의 맑시즘과 실증주의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예컨대, 설명 기법으로서의 ‘보편적 법칙’—그것이 거리조락론이든 노동가치론이든—에 대한 과대망상(이때 설명은 특정 사건들을 일반적 과정의 결과로 제시함으로써 구성된다), 인간의 의식을 사회적 삶에서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 이론 속에 담긴 언어와 상징적 의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간을 공간보다 우위에 둬으로써 지리적 관계를 수동적이고 부차적인 지위로 환원시키려는 경향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결함들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이행과정에서 확연하게 노출되어왔다.

포스트모던 사고의 등장은 여러 분과학문에서 거의 동시에 전개되어온 몇 가지 경향들을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재강조(Soja, 1989), 여기에는 지역론(regionalism)의 부활과 지방별 고유성의 문제가 포함된다(Warf, 1988); 문화, 언어, 지식, 그리고 이데올로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탐구 영역의 확장(Giddens, 1984); 텍스트분석, 문예이론, 그리고 해체주의의 만개, 여기서 사회란 다수의 상호모순적인 의미들이 침윤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의 성숙(Geertz, 1983); 구조주의와 목적론적 설명의 종언; 그리고 계급에 기초

한 사회분석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성(gender)이나 민족성과 같은 여타 사회적 규정력에 기초한 분석모델로의 이행(Kellner, 1988)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법들은 기존의 이론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회적 규정력의 복잡성, 사회체계의 개방성, 사회적 삶의 이질성, 그리고 인간의식과 주관성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단선적인 사상적 조류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때로는 서로 상충하기도 하는 이해의 틀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이러한 차이들은 일단 무시하기로 한다. 따라서 다른 담론들과 마찬가지로 이 담론 역시 그 자체의 침묵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포스트모던 철학의 근원을 료파르(Lyotard, 1984)와 제임슨(Jameson, 1984)에게서 찾으려 한다. 이들 두 사람은 모든 모더니스트들의 '큰 이야기들'에 대해 깊은 회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이야기는 초역사적, 보편적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와 같은 근본이 배제된 세계관을 창출하려는 시도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실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세계를 획일적으로 엄밀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한다(Dear, 1988).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현실이란 본래 복잡하고 변칙적이며 무질서하고 혼돈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현실은 근본적으로 질서있는 것이라고 하는 계몽주의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으로부터 인식론적 규칙들(예컨대, 객관성, 재생가능한 결과, 사실과 가치의 분리 등)을 빌어오려는 모더니스트적 시도가 거의 없다. 합리적으로 구조화된 모더니즘의 세계 대신에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현실세계를 무한히 복잡한 수수께끼 같은 것, 절충적이며 변화무쌍한 것, 그리고 플라쥬 같이 중층적으로 혼합되어 있어서 하나의 이론으로는 결코 적절히 포착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요컨대, 현실세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어떤 언어로도 적절히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Mann, 1986: 4)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화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너저분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일반이론에만 집착하는 모더니스트들의 자세는 오만한 환상에 불과하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를 해석하는 데 쓰이는 재현체계(systems of representation)로부터 비롯되어 동시에 그것에 의해 제한을 받는 사회구조라는 개념들은 그것들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욱 많은 것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거나 숨기게 된다. 우리가 질서(order)를 찾으려 할 때 질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혼돈을 찾으려 할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가장 정교한 담론들 속에도 침묵이 내재해 있으며, 이때 침묵 또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 관찰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찰자가 세계를 어떤 개념을 통해 바라보는가를 반영해준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유일한 객관적 실체에 대한 사상(maps)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축된 허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든 세계관은 그것이 이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든 않든 간에 역사적으로 특정한 담론에 봉사하기 위해 구축된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환영일 뿐이다. 모든 세계관, 모든 이론, 모든 모델은 다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통일적인 모든 세계관(‘총체적 담론’)을 거부하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은 ‘생산양식’, ‘계급’, 그리고 ‘착취’와 같은 초역사적 개념을 사용하는 맑스주의에도 도전한다(Graham, 1988). 경제적 관계를 중시하는 맑스주의자들은 여타의 사회적 실천형태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인간경험의 다양성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Lyotard, 1984). 게다가 다른 계몽주의 사상들과 마찬가지로 맑스주의는 서양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전제한다(근대화이론의 공통적인 실패). 다른 모든 큰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맑스주의도 모더니스트들의 사고 속에서 역사적으로 특정한 자신의 기원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특정한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특이성을 설명할 능력이 없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Gould, 1988 참조).

쉽게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다. 그것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개념을 거부한다. 근본적 진리에 토대를 둔 광범하

고 보편적인 큰 이야기 대신에,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자의식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지화된 담론을 요구하며 제한된 경험의 영역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스케치한 것에 불과한 현실모사를 요구한다(Kellner, 1988).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을 경험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경험주의와는 달리 새로운 의미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의미에서 이론이 가지는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이론'이라는 용어는 결코 모순어법이 아니다. 작은 이야기(partial narratives)를 만듦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언어와 재현의 문제를 강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야기, 텍스트, 상징형태, 해석학, 그리고 사회적 및 과학적 분석의 가정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고프만(Goffman, 1959)과 같은 미시사회학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의미들—곧 지식—은 항상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왜냐하면 지식이란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망을 통해 구축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인식론은 공통성(commonalities)이 아니라 이질성(heterogeneity)을 찬양한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또한 명확한 시작과 종말을 주장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성(permanence)보다는 일시성(ephemerality)을 강조한다. 그것은 담론의 내용 못지않게 담론이 지닌 모순과 침묵을 집요하게 지적한다.

이쯤에서 독자들에게 몇 가지 난해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예를 들면, 세계의 본질적 질서를 포착한다고 강변하는 이론들이 그렇지 못한 이론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저 이론이 아니라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가? 만약 현실이 근본적으로 무질서한 것이라면,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들은 모두 환상이 아닐까? 우리는 바로 그 대안(세계는 근본적으로 무질서하다는 주장—역주)이 두려워서 기존의 이론과 모델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아는 것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개념적 범주들만 날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진정 지식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준거인가? 세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모델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모든 인식론적 질문들 배후에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깔려 있다. 푸코(Foucault, 1972)의 주장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해석행위가 정치적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모든 세계관은 차별적으로 특정한 정치적 이익에만 봉사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론은 하나의 설명도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해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스미스(Smith, 1986)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역사학자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가 제시한 ‘변방(frontier)’이라는 테제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신대륙 내부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개척이 이루어지면서, 변방이란 말은 생산적인 기독교문명과 ‘쓸모없는’ 이교도 야만인들을 구분하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20세기 후반 사회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테제는 자민족 중심주의적임이 쉽게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서 터너의 변방이란 테제가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적 현상을 정확하게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용어가 과학적 설명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스미스(Smith, 1986)는 이 점을 재개발(gentrification)에 대한 입장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도시재개발은 ‘도시불량촌’이 생산적인 ‘도시중산층거주지’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변방 저쪽에 사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야만인으로 치부하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회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객관성을 표방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침묵을 통해서라도(어쩌면 특히 침묵을 통해서), 그 배후에 ‘변방’에 관한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적 파생효과를 특정 견해가 과연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데 있다. 모든 이론, 모든 모델은 자의적이건 아니건 현실에 대한 특정 집단의 해석을 차별적으로 정당화해준다. 이런 점에서, 계몽주의 그 자체는 누구의 이익에 봉사해왔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백인남성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관점은 광범한 양면성을 지니

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스트모더니즘은 ‘심층적 실체’와 겉모습(표상)을 혼동하며, 피상적인 외양(style)으로 분석적인 본질을 대체하는 지적 무정부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당연히 맑스주의자들이 가장 격렬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방별 고유성이나 인간의 의식 등을 모두 계급의 영역에 종속시키면서 이것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Duncan & Ley, 1982). 예컨대, 하비(Harvey, 1989) 같은 학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자본주의의 문화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급속한 기술변화(예컨대 정보통신), ‘유연적 축적’, 범세계적 시장, 시·공간 압축, 그리고 일상생활의 상품화 등에 대한 미학적 대응에 다름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반박은 포스트모던 문화를 역사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존재론적 근원을 20세기 후반의 범세계화된 자본주의 속에서 찾고 있다. 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급속하면서도 심대한 사회변동으로 특징지어지는 특정한 역사적 계기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하비는 보편적인 큰 이야기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다른 모더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설명의 ‘보편적 법칙들’만을 끈질기게 고집하고 있다. 디어(Dear, 1991: 537-538)의 지적처럼, “솔직히 말해서, 하비는 문화비평가이기 보다는 정치경제학자이다. … 그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차이를 제대로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의 도전에 대한 하비의 대응은 모더니스트(맑스주의자)의 합리성을 철저하게 재구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 생각하건대, 이제는 더 이상 현실세계를 맑스주의 틀에 억지로 꿰어맞추려 하지 말고, 하비 자신이 맑스주의 틀을 과감히 바꾸려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한편, 소자(Soja, 1989)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는 사회과학에 만연한 역사결정론(historicism)의 실체를 명쾌하게 벗겨내고 있다. 역사결정론적 사고 속에서는 설명 차원으로서 시간이 공간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서구(비구조주의적) 맑스주의가 부활하면서 사회이론에 공간을 개입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는 (다소 미온적

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포스트모던한 수사학을 열렬히 주창하면서도,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소자의 경험적 분석은 포스트모던한 분석이 아니라 모더니스트들의 분석범주에 깊이 매몰되어 있다. 소자의 이 연구는 하비의 연구들(예를 들어, 경기순환, 투자, 노동시장 등)과 비교해볼 때, 그 방법상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 맑스주의 진영을 이간시켜놓았다는 사실은 흥미있는 일인데, 이러한 양분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추장스런 말장난 정도로 매도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서구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가정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포스트모더니즘을 토대로 사회이론을 철저하게 재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2. 포스트모더니즘과 지방성 논쟁

여타 분과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리학이 포스트모더니즘에 점점 더 심취해가면서, '총체적인 큰 이야기들'이 여러 개의 작은 담론들로 활발하게 재구성되어가고 있다(Scott & Simpson-Housley, 1989; Gregory, 1987, 1989; Dear, 1988; Ley, 1989). 이러한 과정을 분석한 결과 특히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본질적으로 사회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오랫동안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계급으로 편향되어왔던—의 영역이 획기적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계급에 기초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규정력들, 특히 사회적 성과 민족성 같은 것들을 포괄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사회사상의 핵심요소로 고려함으로써(그리고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월성 인식이 없어짐으로써),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삶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및 지리적 특이성에 보다 민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전환은 지방과 고유성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일깨

우고 있는 지역지리의 부활과 지방성 연구에 비추어볼 때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Thrift, 1983; Cooke, 1987; Warf, 1988; Cox & Mair, 1989; Lovering, 1989). 지방성 논쟁은 장소와 프로세스, 이론과 방법, 필연성과 우연성,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지방적인 것과 범세계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활짝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방성 논쟁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와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Bonnett, 1989를 참조할 것). 특히, 포스트맑시즘의 본질이나 포스트모던 지리학의 설명들이 어떤 것인가는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이 점에 비추어 이 글에서는 포스트모던 지리학이 가지는 몇 가지 의미있는 차원을 제시하려 한다. 소자나 하비가 주장하는 입장과는 달리, 이 글에서 제시하려는 접근법은 단순히 존재론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인식론적 수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진지하게 탐색해보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포스트모던 지리학의 네 가지 핵심적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복합성-복합성이란 일반적인 큰 이야기들(맑시즘을 포함해서)이 대개 사회구성체들 내부 및 그들 사이의 풍부한 차별성을 올바르게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지리학은 사회세계를 엄밀하게 획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모더니즘의 유물)를 거부한다. 사회세계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하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따라서 포스트모던한 설명에서, 설명은 광범한 프로세스의 소산으로 간주되는 특정 사건들로 구성된다는 가정을 배경한다. 오히려 설명 그 자체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며, 설명에 동원된 언어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맥락성-맥락성이란 사회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그리고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월성 소멸)을 강조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지리학에서는 사상(things)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이해하려면 그것들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을 대할 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특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예컨대 설명이라고 하는 것도 장소의 고유한 특

성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우연성-우연성이란 인간의 의도와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지리학은 무비판적이고 몰역사적으로 개별성을 찬양(대부분의 현상학적 접근법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하지도 않고, 맑스주의의 과도한 결정론에 빠지지도 않는다. 포스트모던 지리학은 기든스(Giddens, 1984)의 구조화이론에서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의도된 행위와 의도되지 않은 의식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에서 사회체계는 시간과 공간상에서 우연적으로 전개된다. 포스트모던 지리학은 목적론적 설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경관이란 의식적인 인간의 행위를 통해 조형되는 것이며, 이때 인간행위는 유한하면서도 계속 변화하는 제약요인들 속에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접근법에서는 역사와 지리는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otherwise)’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결코 과거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사회와 지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현재의 모습과 (과거나 미래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비판성-비판성이란 지식과 권력의 연결고리를 간파하는 것이며, 모든 설명은 동시에 기존의 이익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한 설명에 따르면, 사회에 관한 지식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단순히 세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소위 하버마스(Habermas, 1968)가 이름 붙인 사회과학의 해방적 전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중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첫째, 그것은 자신을 역사적 산물로 인식하며, 둘째, 그것은 자신이 사회적 삶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데 공헌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기초로 확립된 설명들은 진부한 모더니스트들의 설명(맑스주의와 실증주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더니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시간 및 공간과 무관한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접근에서는 지역이 존재론적으로(이를테면 실재적 실체로서)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측면(이를테면 지식의 형태로서)에서도 사회적 설

명의 핵심적 요소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모더니스트들의 입장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관계는 지방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심지어 '동일한' 프로세스(예컨대 탈산업화)라도 지역마다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치고 있다—사실 지방성 논쟁은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Massey, 1984). 이처럼 모든 개별 지역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가적 및 국제적 분업과 같은 '보편적 프로세스'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이들 지역에서의 사회적 관계들은 아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더욱이 지역은 이러한 변화들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들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한다(Thrift, 1983). 그러므로 광범한 공간적 영역에 걸쳐 전개되는 사회적 관계는 개별 장소의 특수성과 분리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고맥락에서 볼 때 모든 이론은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화된 이론들은 개별 장소가 가지는 다양성과 고유성을 기존의 개념범주 속에 억지로 꿰어맞추 이들의 본래 모습을 호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별 장소들의 내재적인 복잡성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지리이론은 개별 장소들의 개별적인 역사에 매우 민감한 작은 이야기를 사용함으로써 장소의 특수성에 알맞게 구축되어야 한다. 포스트모던 지방성 연구는 추상적인 광범한 프로세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다. 장소에 관한 한 일반이론이란 없다. 이론은 고유한 그리고 우연히 창출된 시·공간 무대 속에서 수없이 중첩되는 사회적 관계들의 교차현상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Giddens, 1984).

추상적 이론들은 사회적 삶을 이론가 자신의 경직된 기대에 억지로 맞추려하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우연적인 사회적 현실을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한다. 포스트모던 지리학은 장소들 사이의 통일성과 확실성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소들간의 다양성과 모호성 그리고 비일관성을 수용한다. 그것은 경관 위에 일반적인 이론적 법칙을 덮씌우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관이 가지는 풍요로운 이질성을 망각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어떤 한 장소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계속 변화하며 중첩적일 뿐만 아니라 심

지어 상호모순적이기까지 한 장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포괄해야 하며, 지방별 사회적 관계의 고유성을 섬세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상이한 사회적 삶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지역은 거대한 구조에 의해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포스트모던 지리학은 모든 장소가 지닌 복잡한 상호관계적 특성을 단순한 선형방정식이나 소수의 근본적인 '진리'로 환원하려 하지 않는다(물론 공정하게 말하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견해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모더니스트 지리학자들이 그토록 열광적으로 추구하는 대상, 즉 장소들간의 공통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포스트모던 지리학은 사회이론 전반에서 계급과 생산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맑스주의가 비록 사회적 재생산의 전체 영역뿐 아니라 계급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적 관계들(예컨대 사회적 성과 민족성)의 중요성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이론에서 계급과 생산관계를 강조한 것은 커다란 공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들이 장소가 가진 미세한 결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환원론적 이론이 필요하다. 비환원론적 이론에서는 사회적 삶을 계급 및 공간적 분업과 독립된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들로 환원하지도 않는다. 사회적 성, 연령, 인종, 종교, 그리고 국적의 차이가 생산 및 재생산 세계 전반에 걸쳐 자신의 영향력을 관철시키는 것은 마치 이들이 생산 및 재생산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점은 몇 가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례들을 통해서도 예증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지리학은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인식론적으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뉴기니에서의 목재생산에 관한 이론은 미국 북서부에서의 목재생산(그리고 목재생산과 관련된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과 달라야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 뉴욕의 빈곤에 관한 이론은 런던의 빈곤에 관한 이론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아프리카에서의 에이즈 확산에 관한 설명은 유럽에서의 에이즈 확산에 관한 설명과 아주 다르고, 멕시코의 범죄지리학을 설명하는 원리는 모스크바에서의 범죄를 설명하는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이들 지역은 각각 나름대로의 고유한 역사적 맥락과 매우 개별화된 정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각 지역은 계급, 민족, 그리고 사회적 성관계가 서로 상이하다. 이들 지역은 서로 구조적 제약요인과 이념도 같지 않다. 목재산업, 빈곤, 에이즈, 그리고 범죄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각 장소마다 서로 다르다. 이들 결과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같을 것이라고 확신할 이유가 없다. 이들 각각의 현상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연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설명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점이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추상적인 '지리적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수한 이질적인 장소만 존재할 뿐이다. 상이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론이란 없다. 다만 다양한 시간과 장소의 맥락 속에서 개발된 다수의 설명들이 존재할 뿐이다.

3. 생각을 닫으며

포스트모더니즘과 지방성 논쟁의 존재론적 뿌리는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들 두 개의 지적 영역은 모두, 그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재구조화와 탈산업화의 사회적 프로세스(Massey, 1984), 혹은 하비(Harvey, 1989)의 표현을 빌리면 포드주의 축적'체제'에서 포스트포드주의 축적체제로의 이행(또한 Albertson, 1988 참조)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해볼 때 어떤 지역은 자본투자가 쇄도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되는 반면(예를 들면 동아시아의 '호랑이들',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지역), 어떤 지역은 자본에 의해 거의 방기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북부잉글랜드와 미국의 '러스트벨트'). 그런가 하면 이들 두 가지 양상이 공존하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모더니스트들의 설명들이 포스트포디즘, 즉 여전히 보편적인 큰 이야기에 터하고 있는 설명형태인 포스트포디즘의 설명틀로 이행했음을 지

적하는 것으로써 포스트모던 지역론의 함의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함의, 즉 분석적 활동이 펼쳐지는 좀 더 추상적인 수준-인식론-에서의 함의가 남아 있다. 원 저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성 논쟁은 포스트모던한 징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지리학내에서 큰 이야기가 향유하던 특권적 지위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특히 보편적 설명'법칙'-비록 이것이 한때 최고의 지위를 누렸다 하더라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확산되었다. 포스트모던 지리학의 입장에 따르면, 지역은 우리가 세계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뿐만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아는가 하는 면에서도 차별성을 부여해준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식세계에서도, 지리는 이제 더 이상 사회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용기(recipient)가 아니라 사회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동적인 공로자이다. 사상이 어디에서 전개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장소를 일반화한 이론들은 항상 장소가 지닌 다양성과 고유성을 기존의 개념적 범주에 억지로 맞추려는 헛된 시도 속에서 이들을 곡해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특정 장소의 내재적 복잡성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지역론이 던져주는 인식론적 함의는 새로운 설명양식이다. 고유한 것을 일반적인 것의 산물로 치부하는 실증주의적 설명양식을 거부하면서, 포스트모던 지리학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장소가 지닌 일시적이고 지리적인 특수성에 맞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더니스트들의 큰 이야기와는 달리 포스트모던 지역론에서는 통일성과 확실성을 고집하기보다 이론이 가지는 시간적 및 지리적 한계와 엄청난 모호성 그리고 장소들 사이의 비일관성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결국 장소에 대한 모든 개념들, 모든 공간적 분석스케일은 침묵 그 자체도 메시지라는 점을 인정하는 한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진실만큼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모든 정의는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사회과학의 임무는 기존의 담론들이 담고 있는 편견을 벗겨내는 것이며, 이와 같은 편견과 그러한 편견들의 정치적 함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새로운 담

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Albertson, N. 1988, "Postmodernism, post-fordism, and critical social theory," *Environment and Planning D* 6.
- Berman, M. 1989,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New York: Penguin.
- Bonnett, A. 1989, "Situationism, geography and poststructuralism," *Environment and Planning D* 7.
- Cooke, P. 1987, "Individuals, localities and postmodernism," *Environment and Planning D* 5.
- Cox, K. & A. Mair. 1989, "Levels of abstraction in locality studies," *Antipode* 21.
- Dear, M. 1988, "The postmodern challenge: Reconstructing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BG* 13.
- _____. 1991, "Review of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nals of the AAG* 81.
- Duncan, J. & D. Ley. 1982, "Structural Marxism and human geography," *Annals of the AAG* 72.
- Foucault, M. 1972, *Power/Knowledge*(C. Gordon ed.), New York: Pantheon.
- Geertz, C. 1983, *Local Knowledge*, New York: Basic Books.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I.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J.: Doubleday.
- Gould, P. 1988, "The only perspective: A critique of Marxist claims to exclusiveness in geographical inquiry," R. Gollidge, H. Couclelis & P. Gould(eds.), *A Ground for Common Search*, Santa Barbara: Santa Barbara Geographical Press.
- Graham, J. 1988, "Postmodernism and Marxism," *Antipode* 20.

- Gregory, D. 1987, "Postmodernism and the politics of social theory," *Environment and Planning D* 5.
- _____. 1989, "Areal differentiation and postmodern human geography," D. Gregory & R. Walford(eds.), *Horizons in Human Geography*, Totowa: Barnes and Noble.
- Habermas, J. 1968,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Boston: Beacon Press.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asil Blackwell.
- Jameson, F. 1984,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Review* 146.
- Kellner, D. 1988, "Postmodernism as social theory: Some challenges and problems," *Theory, Culture and Society*.
- Ley, D. 1989, "Modernism, postmodernism, and the struggle for place," J. Agnew & J. Duncan(eds.), *The Power of Place: Bringing Together Geographical and Sociological Imaginations*, Boston: Unwin Hyman.
- Lovering, J. 1989, "Postmodernism, Marxism, and locality research: The contribution of critical realism to the debate," *Antipode* 21.
- Lyotard, J.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nn, M. 1986,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 of Labour*, London: Macmillan.
- Scott, J. & Simpson-Housley, 1989, "Relativizing the relativizers: on the postmodern challenge to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BG* 14.
- Smith, N. 1986, "Gentrification, the frontier and the restructuring of urban space," N. Smith & P. Williams(eds.), *Gentrification of the City*, Boston: Allen Unwin.
- Soja, E. 1989, *Postmodern Geographies: The Re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 London: Verso.

Thrift, N. 1983,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1.

Warf, B. 1988, "The resurrection of local uniqueness," R. Golledge, H. Couclelis & P. Gould(eds.), *A Ground for Common Search*, Santa Barbara: Santa Barbara Geographical Press.